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으려면

시론

채진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상호비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왜 선거만 하면 이 모양일까? 문득 조용 필의 노래 '그 겨울의 첫집' 가사 중,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최근까지 벌어진 후보자들 사이의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 그리고 프레임 전쟁을 보면, "내가 막장 저질 네거티브 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을까? 자고 감이 든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4월 15~16일 후보등록을 기점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5월 9일 투표일까지 불과 23일 남았다. 남은 시간동안, 과연 우리 국민들은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시민들은 대선의 성격을 '별꽃대선'이나 '장미대선' 아닌 '촛불대선'으로 명명하자고 요구했지만 그에 걸맞는 정치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후보들의 정책실종 사태는 박근혜 후보 부실검증과정이 초래한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51%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에선 촛불대선 의지 정치권에선 흑색선전 만연

일찍이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의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불량품인 박근혜 후보를 공천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정당의 후보공천과 검증,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정부실패'와 '정치실패'로, 민주주의가 위기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이상은 후보자 간, 그리고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숙고 및 합의가 일어나는 것이다. 선거과정이 그렇지 않다면 선거



지난달 11일 마지막 촛불집회에서 행진하는 시민들

(사진=기호옹 기자)

란 슈퍼터가 말한 대로, 소수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경쟁하는 척, 쇼를 하는 '과두제적 요식절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물론 탄핵결과로 급조된 선거라 정책검증을 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경쟁을 회피하는 것은 평계이며 유권자에게 동의받기 힘들다. 합리적인 유권자는 세금으로 대통령의 국정정책과 비전을 구매하거나 양쪽을 교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책과 비전 없는 후보는 능력 없는 후보로서 불량품에 해당되기에 동의받기 어렵다.

정책에 대한 검증과 숙고가 없는 선거란 결국 공공선택이론가의 주장처럼, 정책편의는 51%의 다수파들이 독점하는 반면 비용은 49%의 소수파들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책에 대한 숙고가 없는 선거는 자율성을 지닌 시민적 유권자보다 재벌과 같은 응집력이 강한 이익단체들의 사의추구적인 이익이 과대 대표되거나 과다 투입되어 정경유착, 이권담합(로그롤링과 포크밸), '관피아' 등과 같은 지대주 구자의 기승으로 결국 정부와 정치의

공공성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주요 정책과 비전에 대한 국민적 토의와 합의과정 없이 후보가 당선되어 정부가 구성될 경우, 선거이후 정책에 대한 정당들의 의견충돌로 국정운영이 교착에 빠지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숙의민주주의의 장으로 꾀피우기 위해서는 후보 간, 후보와 유권자 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대화와 토론은 양자 간의 신뢰를 높여 준다. 이를 위해서 후보자들은 정책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경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세론'의 붕괴 이후 '문-안 양강구도'로 재편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의 추세를 볼 때, '문재인 대세론'이 무너지고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 중 누가 더 중도, 중도보수층, 무당파의 전략투표를 받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중도층 흡수를 위해 유권자들의 선호, 이익, 정체성을 변형하여 새로운 중도층을 만드는 '트라이앵글레이션(triangulation, 삼각화) 전략'과 충분한 토론이 투표로 연결되는 '숙의투표(deliberative voting)'를 어

느 후보가 사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된다. 트라이앵글레이션은 좌우와 중간 지대를 넘어서 통합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삼각형 위 꼭짓점의 자리를 선점한다는 개념이다.

대선 후보들은 일방적인 주장자가 아닌 토론자로서 안보이슈는 물론 양극화 극복, 청년실업, 임금격차 해소 등 민생정책을 놓고 국민과 토론해야 한다. '헬조선'과 '흙수저'로, 좌절감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는데 올인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원인은 '저임금의 값싼 일자리의 부족'이 아닌,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 엉뚱하게 '값싸고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이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부터 해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 해답은 일본의 아베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 임금제"에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면 지금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부족'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부족'의 문제이다. 어느 청년이 대기업의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해놓고, 비정규직 임금을 주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겠는가?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마당

조형래

(스포츠지도학 2013)



다가오는 대선과 청년정책

긴박했던 탄핵정국을 지나 내달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높에 빠진 대한민국의 성장 돌파구와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앞날은 향후 5년을 책임질 어떤 리더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디 현명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차기 정권에서는 담담한 현실을 해결해 줄 청년정책이 많이 밸이되였으면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지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창업 지원과 공공기관, 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보를 내세웠다.

먼저 청년창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을 가진 인재를 지원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였다.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둔듯하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발의로 푸드트럭 규제를 폐지하여 우리학교 학생의 '스테이크아웃' 같은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제공과 창업유관기관의 투자지원으로 다양한 업종에 도전하는 청년 스타트업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무색하게 하는 어두운 면이 있다. 서울시 푸드트럭 468대중 169대는 폐업했다고 한다. 구청이 지정한 공유지나 범으로 허용된 위치에서만 트럭을 열 수 있고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겪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무너지고 만다. 정권의 예산과 달리 실적이 저조하니 단순히 고용지표를 올리기 위해 청년 창업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게 되었다. 차기 정부는 청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창업정신이 좌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획했으면 한다. 또한 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다른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기를 기대해본다.

청년들의 패기와 아이디어 지키려면 장기적 시각 필요할 것

다음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다. 지난 정부는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기대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체험형 인턴 인원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낮추며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이나 경쟁력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구직자의 대기업 지원율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들은 고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장벽이나 규제에 무너지지 않게 잠재능력을 갖춘 기업을 살리는 제도와 이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차기 리더의 선출은 앞으로 20~30년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이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는 도산 안창호의 말을 새기며, 낙망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희망과 의지가 반영된 나라를 세우길 기대해본다. 모두가 정치현안에 관심을 두고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힘을 모을 때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2017.5.8.(월)~6.16.(금) 접수기간: 2017.4.17.(월)~2017.5.4.(목)

• Level Test : 영어회화: 4.27(목), 5.1(월) 17:30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4.27(목) 17:15

•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수강료	Basic /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5:00~17:00 (금)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30~20:00 (화)
	레벨	Ted Talk	Talk Like Ted	Academic Writing	Screen English Book Club Ted Talk
	수강료	150,000원		12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중급1 / 중급2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2 / 초급3 / 중급1	초급1 / 중급2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화, 목) 07:45~08:45 오전반(월, 수) 07:45~08:45	오후반 17:30~19:00(화, 목)	오후반 17:30~19:00(월, 수)	오후반 19:00~20:3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1	중급1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3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9:00~20:2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3
	수강료			120,000원	
베트남어	시간			오후반 18:00~19:20 (월, 수)	오후반 18:00~19:2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